

LG석유화학, BPA 영업 본격 돌입

김반석 사장 직접 Sales Promotion ... 2005년 생산 앞두고 빠른 행보

LG석유화학이 2005년 6월 상용생산을 앞두고 수요기업들을 상대로 김반석 사장이 직접 나서는 가운데 발빠른 Sale Promotion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PA 수요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김반석 사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Sales 일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수요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업생산이 1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BPA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G석유화학은 기존의 국내 독점 생산기업인 금호P&B화학과의 무리한 가격경쟁이 아닌 수입제품 시장의 대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les Promotion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산 BPA를 상당부분 수입해 사용해 왔으나 국내에 경쟁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수입제품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내 BPA 수요는 2003년 16만5000톤 수준으로 8만톤은 금호P&B화학이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금호P&B화학 관계자도 “LG석유화학이 시장에 진입한다고 해도 국내기업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면 공멸로 갈 수 있는 것을 LG석유화학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동안 시장 선점 기업으로써의 인지도와 기술 등 경쟁력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경쟁에서의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LG석유화학의 신규증설은 3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3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6월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석 기자>

<화학저널 2004/04/08>